



북미 두 정상의 악수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트럼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북한과의 후속회담, 다음 주에 열어
美전몰자 유해 6000구 송환 예상
김정은 나보다 더 비핵화 원해... 완전 비핵화 검증
문재인·시진핑에 감사... 金, 백악관 초청 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향을 나타냈다”면서 “미국은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고위급 당국자들과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전선언 곧 될 것...한미군사훈련 고비용에 부적절”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해 “중전이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데려오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미군사훈련 비용은 비싸고 도발적이며 부정적하다. 중단하면 비용이 절약된다”고 역설했다. 또 “북한에 있는 6000구 넘는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김정은 비핵화 약속...재능있게 상황 관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한 첫 조치를 취한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한다”며 “시 주석과는 곧 전화통화를 할 것이며, 문 대통령과는 (협상 내용을 담은) 문건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협상을 원한다는 것

을 느꼈다. 회담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부터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약속했으며, 그는 재능있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보다 더 비핵화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위협은 이제 제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 핵 문제가 해결되면 제재를 완화할 것이지만, 지금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비핵화 검증 위한 많은 인력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비용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이미 주요 미사일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5월 둘째

주(6~12일)부터 평안북도 구성시 북쪽 이차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 내 시설물에 대한 파괴작업을 시작해 같은 달 19일에 완료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김정은 백악관 초청 수락”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그가 이를 수락했다”며 “적절한 때에 초청이 이뤄져야 한다. 평안에도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의 추가 회담이 필요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상호 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김정은과의 추가 회담이 필요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 “일본인 납치 등 인권 문제도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인권 문제를 논의했으며 앞으로 더 논의할 것”이라며 “오토 윌비어가 없었다면 지금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인 대학생 윌비어는 북한을 여행하다 1년 6개월간 억류돼 있다 지난해 6월 석방된 뒤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했다”고 전했다. /뉴스

“마지막 냉전 해체 세계사적 사건 남북미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

문 대통령 “평화·협력 새 역사 써가
담대한 여정 결코 포기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미국과 남·북한이 거둔 위대한 승리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 세계인들의 진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의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

한미 정상, 이틀 연속 통화... “북미 합의 신속 이행”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정상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 간 도출한 합의의 신속 이행에 대한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40분까지 20분 동안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2분(현지시간 오후 6시32분)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를 떠나 귀국길에 오른 뒤 자신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결과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이투기 어려움,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훌륭한 대화 상대였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의 돈독한 유대 관계가 형성됐다”고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김 위원장이 뭔가 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합의한 미군의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남북 사이에 유해발굴 사업이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미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北美 합의 “北 ‘완전한비핵화’ 노력”... 4개 조항 담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북미 정상 회담을 열고 합의문에 서명한 가운데 그간 미국 측이 북한에 요구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중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부분이 합의문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3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43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이 “광장히 포괄적인(Comprehensive) 서명”이라며 “좋은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자리에서 합의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북

미는 4개조항에 합의했다. 그 중 세번째 조항에서 북미는 CVID중 “(complete 완전한) 비핵화만 약속했다. 4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미북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북은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북미는 이미 신원이 확인이 된 전쟁포로(POW/MIA)의 즉시 본국송환을 포함해 POW/MIA 관련 복구를 약속한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